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30여 년 전 살았던 도시를 방문하였다. 18세기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영국의 3대 도시인 셰필드는 놀랍게도 예전 그대로였다. 다들 어찌지 않은 구불구불한 신자로, 허술한 2층 석조 주택, 도시 중심 커뮤니티 센터와 우뚝 솟은 교회당 종탑이 있는 영국 북부 산업도시의 여전히 모습으로 필자를 반겨주었다.

셰필드까지 1시간이 걸리는 열차가 20분 연착되었지만 승객들은 불평 없이 묵묵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에 예고 없이 플랫폼이 바뀌는 바람에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하기도 했다.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 부부와 엇갈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잘 만났다. 반기는 포옹을 하며 눈에 이슬이 맺힌 친구의 모습을 보자 필자도 울컥했다.

친구 부부에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먼저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밖에서 대접할 수 없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여전히 영국 음식은 심심

‘지금, 여기’ 행복하다는 느낌

한 편이었지만 친구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필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랜만에 들리본 친구의 집은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충분했다. 무척 커 보였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좁고 웅장한 느낌이 들었고 5명이 앉으면 딱 차버리는 좁은 거실 한쪽에 가족사진이 걸려있었다. 친구는 50년 이상을 이 집에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워 출가시켰는데, 잘 가꾸어진 과일나무가 있는 작은 뒤뜰에서 멀리서 온 가족까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새삼스럽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인 필자의 경우는 가족모임을 위해 식당을 예약하고 집 밖에서 모이고 있지만 예전에 온 식구들이 좁은 집에 모여 음식을 차리고 떠들썩하게 모였다가 헤어졌던 정겨운 모습이 떠올랐다.

올해 초에 필자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친구 역시 나이가 들어 엉덩이 뼈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낙후된 영국의 의료시스템 때문에 수술 하루 전날 입원하고 수술 받은 다음날 퇴원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약 3주간의 입원, 그리고 퇴원 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던 필자의 경험과 대조되는 상황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좋은 의료체계에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필자는 ‘그런 혜택에 충분히 감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할 자신이 없었다.

속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행복하다는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평범한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얻는 행복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보았다.

미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린 피터스(Lyn Peters)는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뜻하고 인력한 집에 살면서 집에 대한 별다른 느낌 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던 것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시스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병원 예약 문제, 사소한 서비스 문제로 불평하지 않았는지, 더욱더 편안함을 바라지 않았는지 돌아보았다.

한 그릇의 밥이 차려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는지 잠시 잊고 살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수백만 명의 부모님 세대, 선배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돌아켜본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잘 받고 관리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필자, 영국 셰필드에서 노년을 보내는 친구와의 30년 만의 만남은 ‘행복하다는 느낌’은 자기 멀리가 아닌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분명하게 있었던 일, 모두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과거의 어느 사건과 일을 두고 ‘사실’이라고 표현한다. ‘사실’(事實)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또는 확정된 평가의 표준에 관련하여 유효한 무언가를 가리킨다. 또한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자체를 말하면서 ‘진실!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있었던 일이나 존재에 대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거짓’이나 없던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는 ‘사실’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라 어떤 거짓된 선동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괴담으로 치부되거나 감성팔이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어느 집단에게는 ‘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비수처럼 여겨지기에 없던 거짓으로 변질시킨다. 어느 시대, 어느 집단 그리고 어떤 이념 체계 신봉자들은 ‘사실’을 자신 기득권 유지와 이익의 수단으로 ‘거짓’처럼 이용할 뿐이다. 왜곡되었지만 ‘사실의 왜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득권 획득

사실의 왜곡! 그게 거짓이다

득 유지 그리고 전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을 ‘거짓’으로 극단적으로 포장할 뿐이다. 여기에서 ‘사실’은 진실의 여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도리어 공격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매우 영광이며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다시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찾아 들었지만, 처음처럼 읽히지 않는다. 한강 작가의 시선과 공감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쓰라리고 아픈지 알고 싶어 한 자 한 자 천천히 읽어보았다. 소설이긴 하지만, 분명히 벌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고통과 슬픔이 작가의 공감과 시선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1980년 5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슬프거나 배고파하면서도 서로를 함께 책임지고 돌보고 보듬어 주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변질되어서도 안되는 진짜의 사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누군가는 빨간기 공산 좌파 등의 레드 콤플렉스적 단어를 사용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아직도 지켜야 할 기득권이 있고 아직도 빼앗기기 싫은 이익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못 배워서일까 아니면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두려운 것이 많은 것인가?

예수의 일대기와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가끔 사실(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요약하고 싶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느님 아버지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

하시고, 특히 도움이 절실하고 위로와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하고 차별을 부추기고, 부자와 가난을 분리하여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폭력은 거짓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실과 거짓’은 진실한 삶과 거짓된 삶으로 바뀌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속내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할 것이다. 이타심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으며,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는 ‘사실’이었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실존했지만, 그들은 ‘거짓’을 살았던 이들이었다. 예수는 ‘사랑’ 그 자체였고 그 사랑을 죽이려는 자들은 탐욕과 이기심에 눈먼 자들이었다.

예수는 루카 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아들이 절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악이 선을 이겨본 적이 없듯이 ‘거짓’이 아무리 설쳐대도 ‘사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을 거부하는 자는 ‘우리는 항상 어른이었고 아기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존재와 생의 과정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까!

기고



채덕현  
광주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장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언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 낯선 나라, 낯선 언어를 쓰는 곳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걸고, 음식을 주문하고, 즐길거리들을 누릴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즉각적인 통역으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것이다.

인공지능 통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기술은 언어 장벽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국제 회의와 비즈니스 회담, 해외여행 중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긴급 상황에서도 언어의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 바로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영어,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언어의 장벽을 넘다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3개국 52명의 통역 도우미들로 운영되며 외국인의 119신고에 대비해 효율적인 외국어 통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통역 도우미 시스템은 외국인인 화재·구조·구급 등의 긴급상황에 119로 신고를 하면 119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긴급구조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자와 적합한 언어의 통역자를 선택한다. 이후 외국인 신고자와 119종합상황실, 통역도우미 간 3자 통화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신고자 A와 한국어 구사하는 119상황실 B가 대화할 때, 통역 도우미는 A의 영어 발언을 듣고 한국어로 B에게 전달하고, B의 한국어 발언을 듣고 영어로 A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통역 도우미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중재하며, 두 사람의 말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여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신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외국인 신고는 총 59건으로 2021년 21건, 2022년 20건, 2023년 18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영어 통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어 22건, 베트남어 4건, 중국어-태국어 3건 순으로 분석됐다. 출동 유형으로는 구급 출동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순 안내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10월 7일에는 무등산 원호봉 인근에서 중국인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광주 119종합상황실

로 접수됐다. 119상황실에서는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즉각 중국어 통역 도우미를 연결하여 3자 통화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한 119종합상황실은 조난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긴급 상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 응급 의료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이 존재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은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원활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든다.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는 단순히 의사소통 매개체가 아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통역은 사고와 재난에서 피해를 줄이고 응급 의료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보장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고, 생명을 지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3자 통역 도우미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중재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社說

꼼수 ‘제3자 변제안’ 가족간 갈등만 키웠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지난 23일, 이 할아버지는 지난 30일 각각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안은 일제강제동원 당사자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일본 정부를 대신해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피해지원재단을 만든 후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안 수용을 종용해 왔다. 제3자 변제안은 재단 출범 당시부터 일본 눈치 보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모두 나주가 고향으로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한 세 명 중 두 명이다. 특히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 반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수용을 거부해 왔는데 그제 가족들이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 측이 수용했다고 발표한 지난 30일은 할아버지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은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에 수용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양 할머니도 치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3자 변제안 수용이 본인의 의사인지의 구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족간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우려대로 제3자 변제안이 가족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다. 일본 기업과 정부에는 할 말도 못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

구내식당 취약층에 개방한 공공기관 사회공헌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직원 전용 구내식당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개방키로 해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기업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금전이나 물품 지원 등 간단한 예산만 투입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공간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며, 이 한 끼를 위해서는 예산 여부를 떠나 식사 준비와 청소 등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수반된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식사 한 끼는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광주시 북구의 한 무료급식소 앞에는 점심 한 끼를 위해 오전 10시30분부터 몰려든 수십 여명의 노인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룬다.

KCA는 엇그제 나주시와 ‘사회공헌 협

력 강화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KCA는 ‘공두의 식탁’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공공기관 최초로 구내식당을 무료 개방한다.

매주 월~금요일 고령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여 명에게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무료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이 대부분 점심을 대접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자칫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저녁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혹시나 저녁 식사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주간의 시범 운영까지 마쳤다고 한다.

여기에 간부 직원들의 기부로 통해 반찬도시락과 식품 키트 등을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해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KCA의 온정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자체가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KCA의 지역민에 대한 사랑에 박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無等鼓

대다수 게임은 ‘딜러’(공격), ‘탱커’(돌격), ‘힐러’(지원) 등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균형을 잡는다. 딜러는 공격을 통해 적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고, 탱커는 반대로 적의 공격을 최대한 오래 버티는 일을 맡는다. 이 과정에 힐러는 공격수와 수비수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축구와 비교하면 일종의 공격수(딜러), 수비수(탱커), 골키퍼(힐러)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처럼 캐릭터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게임 밸런스’가 형성되고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덩달아 높아진다. 딜러만 넘쳐나면 공격하기도 전 야군

국정감사

에서 ‘경쟁’보다는 ‘충성 맹세’가 빛을 내면서 국정장을 차지한 여야 의원들은 누가 당대표와 대통령을 잘 보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느냐에 진용이 맞춰진 듯 했다. 술한 게임과 스포츠의 경험처럼 ‘다양성이 정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최악의 국감이 남긴 ‘여야가 다양성 회복을 통해 ‘정치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것이 정치를 건강하게 한다’는 교훈을 곱씹어야 할 때다.

국감에 뛰는 선수의 준비 부족도 당도라졌다. 앞선 총선 당내 경선이 불발당하고, 탱커만 있다면 적의 공격만 받다가 ‘게임 오버’ 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국감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안을 중심으로 정쟁만 펼쳤다. 민주당은 연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대응했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